

사설시조와 여성: 그 흔적들과 시선의 지층들

박상영*

차 례

1. 들머리
2. 사설시조 속 여성의 흔적들
3. 흔적을 향한 시선의 지층들과 학술 담론의 推移
4. 남은 과제와 전망 모색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사설시조 속 여성의 흔적들과 이를 향한 학술 담론의 추이를 통해, 최근 고전시가 분야에서 여성주의 시각이 어떤 문제적인 의제들을 생산해 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망은 무엇인지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는 그간 고전시가 속 여성은, 작품 속 남성에게 의해 왜곡된 타자성의 발현일 뿐이라거나 실은 유희 공간에서 남성의 일탈 욕망을 투사하는 장치라고 본 이래, 많은 공감과 반향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연구학적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사설시조에는 주체화, 타자화, 무성화 된 존재로 인식되는 여성들의 흔적이 발견된다. 주체화된 여성은 대개 거침없는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표상된다면, 타자화된 여성은 남성에 의해 성녀-창녀화의 방식으로 침묵하는 주체로 표상된다. 반면 무성화된 여성은 주체/타자화를 넘어서, 일반적인 여성상으로부터 벗어난 소외된 여성들로 표상되는데(장애, 노년 여성), 이들을 향한 그간의 학술 담론의 추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주체화된 여성들을 향해서는 조선후기를 바라보는 관점, 근대-전근대, 일상성-저항 권력, 욕망-저항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타자화된 여성들을 향해서는 성녀-창녀의 이분법으로 보아온 남성들의 시선 편향성 및 '남성 작자의 여성 목소리 흥내내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기'가 주된 쟁점이 되어 왔다. 무성화된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간 학술적 관심이 미약했지만, 최근 노년 여성 담론은 욕망-저항의 대립을 보이며 다소간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장애 여성 담론은 여전히 관심사 밖에 놓여 있다.

사실 지금까지 고전시가에서 여성주의 시각은 남성과의 이원적인 관계를 크게 강조해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핍박받는 여성들 혹은 여성들 간의 화합과 연대의 방식이 어떠했는가에 초점을 둔 감이 크다. 하지만 오롯한 젠더 연구를 위해서는, 여성의 상대역으로서 존재해 온 남성에 대한 관심, 화합하는 아이코너로서의 여성상 찾기, 남겨진 여성들에 대한 발굴과 비교 연구(이주 및 귀화 여성 등), 연행 환경 속 여성들의 역할 구명 등이 다각도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사실시조, 여성 흔적, 주제·타자·무성화, 학술 담론

1. 들머리

국문학 연구에서 '여성'은, 80년대 말-90년대 초 페미니즘 문학론의 열기와 더불어 시작된 만큼 분명 새로운 화두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 하에서 신음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이들을 남성 중심의 불평등한 문학사¹⁾ 전면에서 내세우고픈 열망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여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은 탓일 터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아쉬운 지점들이 고전시가 분야에서는 어떠했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려 한 것이다. 즉, 여성 문학 전반에 대한 국문학계 연구의 지형도 변화²⁾와 더불어 고전시가에서는 그 관심의 추이

1) 여성주의와 관련하여, 현 고전 문학사를 두고 불평등한 문학사로 지적한 여러 지점들과 현상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만하다(박무영, 『한국문학통사』와 “한국 여성문학사”(논평): 여성문학사를 위하여,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5, 79-118쪽; 최기숙, 「젠더 비평-메타 비평으로서의 고전 독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6).

2) 초기 여성 문학 연구는, 당시 국문학 연구의 핵심 쟁점이던 근대성, 민족주의, 탈식민주

가 최근 어떤 방향성을 보이며, 어떤 문제적인 의제들을 생산해 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고전시가 연구에서 ‘여성’은, 작품 속 여성 화자가 남성에게 의해 왜곡된 타자성의 발현일 뿐이라거나³⁾ 실은 유흥 공간(妓房)에서 남성의 일탈적 욕망을 투사하는 장치였다고 본⁴⁾ 이래, 많은 공감과 반향⁵⁾이 있어 왔다. 그 과정에서 갈래별, 주제별 다양한 관점으로 기술된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이라는 단행본이 출간⁶⁾되기도 했고, 여성 관련 학회의 출범과 함께 고전시가 속 여성에 대한 관심의 물줄기를 찾아보려 하기도 했으며⁷⁾, 고전시가 연구 성과를 총정리 하는 과정에서 여성주의 시각의 연구가 가진 성과가 부분적으로 언급⁸⁾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전시가 전체를 관통하는 여성 형상의 특징적인 면면들과 변모상의 원인을 밝히려는 논의⁹⁾ 및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을

의라는 의제에 따라 여성성/여성적 글쓰기/여성작가들의 작품 발굴과 재해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문학제도사, 일상사, 문화사 등 학제 간 연구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다(김양선,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천과 과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62쪽).

- 3)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 화자」, 『고전문학연구』 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5-28쪽.
- 4) 박예경, 「사설시조의 여성화자와 여성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집, 한국여성문학회, 2001, 93-115쪽.
- 5) 여기에는 고려속요나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화자가 현실의 성이나 性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나(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성이 타자화 된 소극적 여성이 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여성일 가능성도 있음을 담은 및 연행의 측면에서 풀어나온 논의(②)가 바로 그것이다(①고정희, 「고전시가 여성 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15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1쪽; 김대행, 「문학의 화자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20쪽; 이형태, 「사설시조와 여성주의적 독법」, 『고전문학과 여성주의 시각』, 소명출판, 2003, 310쪽; ②줄고, 「고려속요에 나타난 서사성의 한 양상」, 『한국시가연구』 32집, 한국시가학회, 2012, 153-190쪽; _____, 「사설시조 속 여성을 향한 두 시선: 저항, 욕망 그 대립을 넘어서」, 『시조학논총』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89-128쪽).
- 6) 김병국 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 7) 신경숙, 「고전시가와 여성: 연구사검토와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305-325쪽.
- 8) 최재남, 「고전시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배달말』 39집, 배달말학회, 2006, 4쪽.
- 9) 줄고, 「고전 시가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 『한민족어문학』 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297-340쪽.

통한 여성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드러낸 노력¹⁰⁾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고전시가 속 여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은 그 실체를 뚜렷이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아마 ‘여성’이라는 큰 우산 아래 다양한 차이를 지니는 여성들을 한데 묶음으로써, 이들 간의 차이를 또렷이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서구의 페미니즘을 수동적으로 되받아 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경험과 맥락과는 ‘다른’ 우리만의 여성주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주장¹¹⁾이 나왔고, 기왕에 여성문학 연구가 남성 중심의 문학과는 다른 ‘차이’에 주목해 등장한 것이기에 이제는 그 차이를 여성문학 연구 내부에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반성적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이제 ‘여성’이라는 거시적인 공통항 이면에 자리하는 미세한 차이 또한 살펴봐야 할 때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여성들은 어머니, 아내, 딸(손녀), 연인, 첩 등 신분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다. 또 신분적 위계의 차이로 호명되지 않는 다수의 여성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들 여성은 작품 및 상황에 따라 작자/창자/텍스트 화자일 때가 있는가 하면, 텍스트 청자/시적 청자(향유자)일 때도 있고,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여성성의 발현이나 모성(성), 여성 정감 및 해방, 여성주의 등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자리할 때도 있는 등 그 층위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여성들’이 실제 텍스트 상 어떻게 차별적으로 존재했는가를 보고, 학술 담론은 이들을 또 어떻게 시각화해 왔던가를 살펴보는 것은, 여성주의 시각의 현재를 짚어보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가문학 전체를 통틀어 여성주의 시각의 공과를 짚어보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고전시가 전체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10) 줄고,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혐오의 한 양상과 그 문화론적 의미』, 『국어국문학』 185호, 국어국문학회, 2018, 143-180쪽; _____, 『사설시조에 나타난 권력의 흔적들』, 『국어국문학』 181호, 국어국문학회, 2017, 67-104쪽; 김상진,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기녀시조』, 『시조학논총』 36집, 한국시조학회, 2012, 17-42쪽 등.

11) 김양선, 앞의 글, 666쪽.

것은 “그 광범위함 때문에 너무 ‘잡다한 가야할 길’의 발견만 있고, ‘중심 방향 설정’엔 실패”¹²⁾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논의가 범박해질 우려가 있고 미세한 지점들을 둘러싼 학적 담론의 추이도 놓치지 십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시가 갈래 중 여성과 관련해 가장 핵심 논쟁이 되어 온 사설시조를 중심으로, 그간 여성주의 시각의 성과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한번 집약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설시조에는 어떤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훑어보고, 이들 여성이 남긴 발자취를 향한 추적의 시선들, 그 시선의 담론 층위들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는지 최근 성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비록 고전시가 속 여성주의 성과의 전체를 훑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적어도 논의 과정에서 그간 사설시조 속 문제적인 여성들과 이들을 둘러싼 담론들이 비단 이 갈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시가 전 갈래 속 여성들의 문제임을 밝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¹³⁾

2. 사설시조 속 여성의 흔적들

여성주의 연구에서, 여성 인물 또는 여성 형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습과 이데올로기의 반영인 문학 속 여성 이미지를 통해 당대의 문화론적 도상을 읽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사설시조의 여성에 대한 관심도 이 같은 측면에서 다기하게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는 남성의 시선 및 목소리에 의한 여성성의 특질을 밝히고자 한 논의¹⁴⁾, 단순 담화 및 발화의 추

12) 신경숙, 앞의 글, 306쪽.

13) 이 방면 연구에서 주요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온당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논지가 있다면 필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하며, 추후 관련 논의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14) 이형대, 「사설시조와 여성주의적 독법」, 『시조학논총』 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401-426쪽; 조세형, 「사설시조의 중층성과 욕망의 언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집,

면을 넘어서 수사학, 웃음 미학 속에서 여성의 문제를 고찰해 본 논의¹⁵⁾, 부분적이지만 사실시조 중 특정한 여성 형상에 주목해 본 논의¹⁶⁾가 있고, 최근에는 기준에 이미 공고해진 ‘여성=남성에 대한 타자’라는 인식을 넘어서기 위한 일환으로, 사실시조 속 여성을 능동적 주체, 대상화된 주체, 대리자적 주체로 나누고 이들 형상의 시가사적 전통을 찾아보려 한 새로운 시도¹⁷⁾ 등도 있다.

이들 모두는 사실시조 속 여성을 통해, 조선 후기 여성 문학의 단면을 밝혀 보고자 한 논의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논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제시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학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어느 한 가지 기준 아래 이들 여성상을 통합할 필요는 없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장에서는 크게 주체화, 타자화, 무성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사실시조 속 여성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¹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97-123쪽; 신은경, 「조선 후기 ‘남’ 담론의 특성과 그 의미: 辭說時調와 雜歌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113-139쪽.

- 15) 여기에는 사실시조의 성 담론을 논구하면서 회극적 웃음을 고려한 논의(①)와 회극적 웃음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성 담론에 대해 부수적으로 논의한 경우(②)가 있다 (①고정희, 「사실시조에 나타난 여성의 수사적 상황」, 『국어교육』 114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199-222쪽; 류해춘, 「商行爲를 媒介로 한 辭說時調의 性談論」, 『우리문학연구』 22집, 우리문화회, 2007, 95-115쪽; _____, 「不倫을 媒介로 한 辭說時調의 性談論」, 『우리문학연구』 24집, 우리문화회, 2008, 3-23쪽; ②줄고, 「사실시조에 드러난 일상성 담론과 미학, 그리고 근대」, 『시조학논총』 37집, 한국시조학회, 2012, 125-158쪽; _____, 「사실시조의 웃음 미학과 담론」, 아세아문화사, 2013; 조성진, 「화자의 “시선”과 사실시조의 담당층 문제」, 『국문학연구』 26집, 국문학회, 2012, 57-96쪽; _____, 「사실시조에 나타난 자기 풍자」, 『제67차 정기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시가학회, 2013).
- 16) 장정수, 「고전 시가에 나타난 여성 형상, “비구니 되기”와 “환속 권유”」, 『한민족문화연구』 32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7-37쪽.
- 17) 줄고, 「사실시조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40집, 한국시조학회, 2014, 143-177쪽.
- 18) 여기서 주체화, 타자화, 무성화는 그간의 학술 담론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전체로, ‘연구자들의 시선 속에서 그렇게 인식되고 범주화되어 온 여성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필자는 이전에, 사실시조 속 여성 형상을 한번 살핀 바 있으나(2014), 그간 사실시조의 여성 연구의 진모를 살피고 아쉬운 지점을 명확히 찾아 향후 방향성까지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적 담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살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 외에도, 논자에 따라서는 사실시조 속 여성을 ‘대상자, 창작자, 향유자’의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가 텍스트에 초점을 둔 것이

21. 주체화된 여성

우선, 사설시조에는 문제 상황 및 욕망 결핍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토로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일련의 여성들이 있다. 보통 발화 주체인 이들은, 작품에 따라 장사치와의 문답을 통해 평범한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 남성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갈등 양상을 극명하게 보일 때도 있으며, 사랑하는 임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하는 과정에서 회화화된 장면을 연출하거나 임과의 사랑을 휘방 놓는 대상을 향해 애꿎은 화풀이도 하는 등 실로 하나로 일괄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차이’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적 욕망이 결부되어 나타난 여성상은 이 방면 연구에서 크게 문제시되었기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놈도 사름이냥혀여 자고 가니 그림더고
 중의 松絡 나 베우고 내 족도리란 중놈 베고 중놈의 長衫은 나 덧습고 내 치마
 란 중놈덥고 자다가 썩어보니 둘의 스랑이 송낙으로 흐나 족도리호나
 이튼날 흐던일 생각하니 못 니즐가 호노라. <326>

이년아 말 듯거라 굵고 나마 차질년아
 처음에 날을 불지 百年을 사자기에 네 말을 곳지 듣고 집 팔고 텃밭 팔고 가마
 팔고 동숫 팔고 紫의馬 써밤이에 먹기 쇼를 마즈프라 너를 아니 주었더냐 무
 스일 뒤 낮마셔 소터를 노랏는다

라면, 후자는 텍스트 외적 상황(연행)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올바른 여성주의 시각 정립을 위해서는 연행 환경 속 여성의 역할 및 의미가 세밀히 고찰될 필요가 있지만, 기존에 이미 가집 연구 및 여창가요의 측면에서 깊이 논의가 된 바 있는데다가 학술 담론의 논쟁점들이 텍스트 중심의 여성을 향한 시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비중을 두었다. 사설시조가 아닌 평시조를 대상으로 후자의 입장을 보인 글로는 김상진 교수의 것이 있고(김상진, 「‘시조와 여성’을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 『시조학논총』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7-38쪽), 여창가요 및 가집 관련 연구 과정에서 여성주의 시각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권순희, 「신발굴 가집 『詩歌』의 특성」, 『한민족어문학』 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421-446쪽; _____, 「『영화초(詠和抄)』 수록 여창가곡의 특성」, 『청람어문교육』 56집, 청람어문교육학회(구 청람어문학회), 2015, 369-392쪽).

저님아 님도 나를 쇼겏거든 님들 아니 쇼길손야. <279>

밋남편 廣州 반리뷔장스 소디남진 朔寧 닛뷔장스
눈情에 거른님은 썩다두드려 방마치장스 돌호로가마 흥도깨장스 빙빙도라 물
레장스 우물전에 치다가 곤맹곤맹하다가 워렁충창 풍덩싸져 물 담복 써내네
드레썩지장스
어디가 이 얼골 가지고 도리박장스 못어드리. <137>

술이라 흥면 물 물 혀두 흥고 飮食이라 흥면 현 물등에 서리藥다오듯
兩 水腫다리 잡조지 팔과 흘기눈에 안팎 솟장이 고자남진을 망श्यक이라 한쳐
두고 보랴
門밧긔 桶1매옴쇼 흥고 웨는 匠事 네나 자고 니거라. <213>

위에는 승려와의 사랑 행각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여성(<326>)¹⁹⁾,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움으로써 남성이 행하는 성적 횡포를 고스란히 되갚아 주는 여성(<279>), 남편 외에 다양한 형태의 남자를 옆에 두고도 또 다른 남자를 유혹할 마음을 먹는 여성(<137>), 고자 남편에 대한 강한 불만 표출과 심지어 버림까지 꿈꾸는 여성(<213>)들의 흔적이 보인다. 이들은 확실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혹은 중세가 부과한 조신한 여성다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이 사설시조의 연구사에서 특히나 문제시 된 데에는, 곧 ‘남성=성 발화의 드러냄’, ‘여성=성 발화의 감춤’이라는 일반적인 통념 속에서, 이들이 보여준 대담함이 충분히 학적 논란거리가 될 만했기 때문이다. 즉, 남성이 ‘性’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당연시함의 범주로, 여성이 그렇게 하는 것은 웬지 ‘음란/조신하지 못함/꺼려짐’ 등 금기의 범주로 인식해 온 상황에서,

19) 사설시조 속, 중이 등장하는 작품의 경우, 보통 수도승으로 보아왔고 이들 작품에 나타나 는 성적 욕망 또한 수도승의 과계 행위 혹은 수도승과의 사랑으로 해석해 온 것이 일반 적이지만, 최근 사당패의 구성원인 거사와 사당의 성애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려 는 해석이 나오으로써, 이 유형의 ‘섹슈얼리티’를 누구의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이상원, 『중 등장 사설시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한민 족문화연구』 6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7, 137-164쪽).

(비록 이러한 발상 자체가 많은 여성주의자들의 공분을 사고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을지라도), ‘성’에 대한 여성들의 문학적 언표화 그 자체는 당대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어떤 저항의 단서로 볼 가능성 혹은 그러한 열망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 여성도 남성들처럼 성적 욕망을 지닌 한 인간이라면, 이들이 문학적으로 언표화 한 ‘성 담론’은 어떤 사회사적 저항의 의미보다는 평범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한 순수 욕망의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렇기에 이제, 이 문제는 ‘조선 후기’, ‘사설시조’, ‘성에 대담한 여성들’이라는 이 세 개의 키워드, 곧 동일한 시대, 동일한 갈래, 동일한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논쟁들을 낳기 시작했다. 즉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들을 기존 질서에 저항한 투사들로 읽어낼 것인지 아니면 여성주의 해석의 과잉에 대한 불편함에 반기를 들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표출한 평범한 소시민으로 읽어낼 것인지를 문제가 이 방면 연구사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2.2. 타자화된 여성

한편, 사설시조에는 주체화 된 여성들과는 반대로, 시적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보이는 주체이자 침묵하는 주체로서, 욕망 표출의 자유마저 빼앗긴 듯한 일련의 여성들이 보이기도 한다.

드립더 뱃드득 안으니 세허리가 즈늬즌
 紅裳을 거두치니 雪膚之豊肥호고 擧脚蹲坐호니 半閑호 紅牡丹이發郁於春風이
 로다
 進進코 又退退호니 茂林山中에 水春聲인가 호노라. (淫聲也當於此爲戒哉
 <937>)

碧桃花를 손에 들고 白玉蠶에 술을 부어
 우리 聖母께 비는 말삼 더 碧桃花와 갓트쇼서 三千年에 못치 뛰고 三千年에 열

미 미져 곳도 無盡 열미도 無盡 無盡 無盡長 春色이라
아마도 瑤池王母의 千千壽를 聖母께 드리고져 호노라. <153>

간밤의 자고 간 그놈 아마도 못 이저라
瓦얏놈의 아들인지 증후에 뽀니드시 沙工놈의 명령인지 沙於씨로 지르드시 두
더취 녕식인지 곳곳지 뒤지드시 平生에 처음이오 흥증이도 야릇지라.
前後에 나도 무턴이 격거시되 춤 盟誓호지 간 밤 그 놈은 춤아 못 니저 호노라.
<15>

늬이라 늬을 안이 두라 思郎도 밧쳤노라
梨花에 나간 늬이 走馬鬪鷄 노니다가 露月光風 점근 날에 黃菊丹楓 다盡토록
金鞍白馬 猶未還이라
두어라 늬이 비록 니졌시나 紗窓 긴긴 밤의 幸혀 올라 기드린다. <69>

먼저 <937>, <153>에는 남성의 단일한 목소리가, <15>, <69>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앞의 두 작품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937>)이거나 송고·찬양의 대상(<153>)이거나 간에 모두 철저히 남성의 발화 속, 관찰 대상으로만 등장한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남성의 시선 속에서 ‘타자화 되는 여성’과 ‘타자화 하는 여성’의 두 가지로 계열화되는데, 전자는 주로 남성이 우위에 있을 때 나타나며 후자는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이 우위에 있을 때 종종 발견된다. 남성이 우위에 있을 때, 여성은 남성 중심의 시선 안에서 육체가 탐색되거나 성행위가 묘사되는 형태로 제시된다면, 여성이 우위에 있을 때, 여성은 비록 남성에 의해 호명되더라도 오히려 남성의 감정을 제어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전자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지만, ‘성녀’로 묘사되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그 타자성에 함의된 주체성²⁰⁾, 시가사적 전변 등도 함께 논의할 필

20) 타자화 된 여성들 중 성녀로 송양되는 여성들은 비단 사실시조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전 갈래의 여성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사실 발신자·수신자의 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발화되는 여성’들이 까닭에 당연히 대상화 되는 인물이지만, 오히려 이들이 대상화 한 존

요가 있다. 단순히 숭양받는 대상(여성)의 생일 축하나 축수연의 자리에서 불린 노래이기에 그렇다는 식의 단정보다는, 그러한 연행 환경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그 속에 담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복잡한 층위를 읽어낼 수 있다면, 여성주의 시각의 폭이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15>, <69>는 얼핏 보면, 앞서의 ‘주체화 된 여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여성 담론의 층위에서는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유형이다. 곧 간밤의 육체적 열락을 잊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떠나가 버린 남성을 그리워하는 화자(<15>), 사랑을 바쳤지만 자신을 무심히도 잊어버리고 만 무정한 남성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화자(<69>)는 모두 여성이 발화 주체이자 사건 주체이지만, 남성 작자에 의해 작품 전면에 내세워진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앞선 유형의 여성들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모두 전대 시가에서 이미 남성 화자의 여성 목소리 흉내 내기 전통과도 맥이 닿아 있는 여성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 여성이 표출하는 욕망이, 과연 누구의 바람이고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하룻밤의 성적 쾌락을 회상하거나 풍류량을 그리워하는 여성이 표출하는 욕망은, 호명한 남성(작자)의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성 스스로의 욕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는 남성 작자에 의해 호명된 여성들이기에 이들 여성을 남성의 퍼소나, 꼭두각사이기만 한 여성으로 이해해 왔던 게 관례였다. 하지만 작자와 시적 화자 혹은 텍스트 화자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연행 주체의 성격에 따라, 여성 스스로의 욕망이 표현된 것으로 읽어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 또한 앞서 살핀 여성 유형과 더불어 이들에 관한 학술 담론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남성)로 하여금 여성들을 그리워하도록 만들거나 끊임없는 갈망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숨겨진 ‘주체성’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이는 곧, 타자성 속 주체성, 주체성 속 타자성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추후 별고를 마련하고자 한다.

2.3. 무성화 된 여성

한편, 사설시조 속 여성들은 대체로 남성과의 관계에서 주체화 되거나 타자화 되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곤 했지만²¹⁾, 여성이면서도 이러한 ‘여성’이라는 범주에서 다소 배제된 듯한 느낌의 여성들도 발견된다. 이들을 논의의 편의상 ‘무성화 된 여성’으로 명명해 본다면²²⁾, 이들의 흔적은 비록 사설시조 안에서 많이 발견되진 않지만 지금껏 소외되어 온 여성들의 범주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갖기에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九仙王 道糕라도 안이 먹는 날을
 冷水에 붓춘 糗旨 糲餅을 먹으라 지근 絶代佳人도 안이 결연하는 날을 코 업삼
 년 결연하라고 지근거리는다
 하늘히 定호신 配匹맞기야 것을써 불 쏘 이시라. <43>

재너머 莫德의 어미네 莫德이 즘랑마라
 내품에 드러서 돌계즘 자다가 니골고 코고오고 오좁싸고 放氣뽀니 춤 盟誓치
 모진내맞기 하 즘즐하다 어서 다려 니거라 莫德의 어마
 莫德의 어미년 내드라 發明하여 니르되 우리의 아기쫄이 고림症 비아리와 잇

- 21) 사설시조 속 여성들은 반드시 ‘남성’과의 이원적인 관계만을 형성하면서 주체화 혹은 타자화 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 간(고부, 처첩)에도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때도 있고, 長幼의 관계 및 사물(기러기 등)과의 속에서 이 같은 관계를 형성할 때도 있다. 그러나 모두 표면상 드러나는 女-女, 長-幼, 人-物도 모두 그 이면에 작품 상 부재하는 남성과의 관계가 전제된 것이 많다.
- 22) ‘무성화(無性化)’는 축자적 의미로는,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음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여성의 범주에서 벗어나 예외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현실, 곧 ‘성적 욕망’이 없는 여성으로서의 ‘무성화’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존재로부터 동떨어진, 이들의 욕망 표출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용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 관한 논의는 엄밀히 말해, ‘무성화의 범주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무성적이지 않은 여성들’에 관한 담론을 포함한다. 보통 성(性)의 규정은 남녀의 이원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최근 제3의 성, 중성, 무성 등 다양한 Gender 개념이 구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장애 여성과 노년 여성을 ‘무성’이나 ‘성적 과잉의 존재’ 등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소외시키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들을 향한 그간의 시선들과 학술 담론의 추이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같이 분류해 두었다.

다감 제症맛기 너나문 雜病은 어려서부터 업느니. <305>

白髮에 환양 노는 년이 저문 書房을 마초와 두고
 센머리에 먹칠히고 泰山峻嶺으로 허위허위 너머 가다가 과그른 쇼나기에 흰동
 정 거머지고 검던 머리 다 희거고나
 그르사 늘근의 所望이라 일락배락허더라. <148>

우선 위에는 남성의 발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타자화 된 여성(<43>의 코 없는 여성, <305>의 막덕, <148>의 노년 여성)도 있고 주체적으로 발화(변명)하는 여성(<305>의 막덕의 母)도 보인다. 그런데 후자를 제외한 여성들은 모두 타자화/주체화를 넘어서 사회적인 통념이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여성’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장애와 늙음의 기호를 아로새긴 여성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라 할 때는 ‘건강하고, 정상적이며, 젊은’ 여성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 여성이나 늙은 여성은 ‘장애’와 ‘늙음’이라는 두 가지 기호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상 혹은 일반적인 여성 이미지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43>에서는, ‘코 없는 년’이라는 장애 여성이 등장하는데 코가 없다는 것은 분명 신체적 결함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며, 절대 가인과는 달리 박색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적 화자(남성)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함량 미달인 ‘온전치 못한 몸’일 수밖에 없으며, 온전한 두 몸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결혼 상대로서는 부족한 것이다. 여기서 ‘장애’는 ‘온전치 못한 대상’을 형성하는 기호로서, 배제되고 배척되는 코드로 제시된다.²³⁾

같은 장애 여성이지만, <305>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여성상이 발견된다. 이

23) 전통 사회에서는 미인의 기준으로 보통 하얀 이, 붉은 입술, 맑은 눈이었지만, 코도 미인의 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양란 이후에는, 왜적들은 조선인들의 코를 함부로 베어 한동안 거리에는 코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기록들[<賊中封疏>(『간양록』), <兵政部 寇賊>(『지봉유설』) 등]도 있는 데서, 코 없음은 전쟁의 상흔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관련해서는 필자의 이전 글에 자세히 다룬 바 있다(줄고,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호, 국어국문학회, 2018, 137-138쪽).

작품은 표면상 장서 간의 갈등이 해학적으로 드러나지만,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친모에 의해 폭로되는 딸의 장애, 바로 고림증²⁴⁾이라고 하는 성병이다. 이는 여성의 도덕적 문란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남성 중심의 성(性) 담론을 해체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애이자 그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을 통해 가부장적 권위를 폭로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한편, 사설시조에는 장애 여성과 더불어 노년 여성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48>에는 성적 욕망을 위해 변장까지 하고 또 다른 젊은 서방을 만나러 가는 늙은 여성이 보인다. 이 여성은, 중세가 부과한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깨뜨리면서 비록 ‘늙은 여성’이지만 젊은 여성처럼 적극적으로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을 단순히 희화화 된 여성으로 치부하고 말 일인지는 의문이다. 노년 여성도 인간 본연의 성적 욕망을 표출할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환양 노는 년’이라는 데서 보듯, 노년 여성의 욕망은 남성 중심의 시선에서 철저히 통제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나타난다(<148>).

게일 루빈은, 세대 간의 사랑은 보편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이며 나쁜 성으로 규정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노년 남성-젊은 여성 간의 만남은 그나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묵인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금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²⁵⁾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위험한 여성으로 재현되는 까닭에,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설시조 속 ‘위험한 여성들’을 감시하는 시선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데, 모두 제도권 속에 넣으려는 중세 가부장적, 윤리적 시선을 대표한다는

24) 이는 비신(脾腎)이 허해 생기는 병으로 내림(內淋)이라고도 하며 성병의 일종(일질)으로 보기도 하지만(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下, 아세아문화사, 1992, 980쪽)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옛 문헌을 보면 성(性)과 충분한 관련성은 있어 보인다(“洪參判君瑞初名麟祥 後避逆賊名 改麟爲履 字曰元禮 甲午乙未年間 爲嶺南方伯 留駐安東 一日患蒼淋證 審藥曰 此乃久鬱所致 非洩之不可 請乘昏選妓薦枕焉 元禮有難色 依違答之 黃昏復請之 默然良久曰 姑舍是 夫人明日自榮川到此府 蓋不欲爲微恙壞貞操也 聞者笑其執拗”, 『泰村集』 卷5, <效頌雜記下>, ‘餘話’).

25) Rubin, Gale(1984).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Vance, Carole S.(ed.).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pp. 267-319.

공통항을 지닌다. 비록 감시와 처벌의 시선 아래 놓여 있더라도 노년 여성이 표출하는 성적 욕망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표출하는 성적 욕망은 인간의 보편화 된 욕망의 발현인지 아니면 중세가 부과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다움’에 대한 저항의 일면인지에 대한 논쟁점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3. 흔적을 향한 시선의 지층들과 학술 담론의 推移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사실시조에는 적극적으로 욕망을 표출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주체화), 남성에 의해 대상화 되는 여성도 있고(타자화), 일반적인 고정적인 여성 이미지의 범주에서 벗어나 열 외로 인식되는 장애 및 노년 여성(무성화) 등이 있었다. 이들의 흔적을 둘러싼 그간의 학술 담론의 추이는, 다양한 여성들 층위만큼이나 다기한 면을 보여주지만 대체로 욕망과 저항, 개인/사회, 근대의 문제, 다수자성/소수자성을 바라보는 시선 등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해 왔기에 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3.1. ‘욕망’과 ‘저항’을 둘러싼 담론, 그리고 일상, 통속, 근대의 문제

먼저 사실시조 분야 여성주의 연구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된 것은, 주체화 된 여성이 보여준 대담한 성(性) 표현이다. 사실 이는 여성에 의해서만도 아니고, 남성이 여성을 타자화 하는 과정에서도 보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여성 이미지에서 벗어난 과감한 행동들이었던 탓에 더욱 주목을 받아왔다.²⁶⁾

먼저, 사실시조 연구에서는 이들 여성을 조선 후기 문화론적 도상과 관련지

26) 사실시조-여성주의 시각에서 이 문제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이 갈래가 성행하던 조선 후기에 대한 관점, 근대에 대한 이해, 고전시가 연구 방향/방법론에 대한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며 현재 진행형 중이다. 최근 연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정리된 바 있다(줄고, 『사실시조 속 여성을 향한 두 시선: 저항, 욕망 그 대립을 넘어서』, 『시조학논총』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참조).

어 ‘육망 주체’²⁷⁾로서 읽어온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핵심은, 사실시조가 성행한 18세기 시정을 점차 강화되어 가던 국가적인 윤리 담론, 그 통제권이 미치지 않던 곳으로 이해한다. 그렇기에 춘화와 음사 소설의 성행, 동성애에 대한 관심도 증가, 양반과 유부녀(천민 여성) 간의 빈번한 사랑과 이의 문학화(<절화기담>), 성기나 벗은 몸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드러난 소설(<오유란전>)의 성행, 미인도를 보며 남녀 간의 정사를 갈망하는 태도의 발견, 양반들 사이에, 여성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당시 성 담론의 표출은 시정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자 ‘일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상이, 당대의 문학(사실시조)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면,性に 과감한 여성들은 한 인간으로서 본래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출한 일상적인 여성들일 터이지, 중세 가부장제를 향한 저항적 전복을 시도한 아마조네스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性이 일상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는 전대 문학에서도 많이 발견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나름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즉 전대 문학에서도 성 담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후기만큼 크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텍스트를 창출할 지식인 계급과 텍스트를 소비할 시장의 부재 때문이며, 그나마 텍스트 창출 능력을 갖춘 지식인 계급 또한 17세기 중반 이후 성리학에 완전히 의식화 되어감에 따라, 구비문학에서와는 달리 기록문학에서는 과감한 성 담론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는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²⁸⁾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쪽은, “사실시조에 나타난 주부의 불륜은 애정의 갈등을 조장하는 가부장제와의 투쟁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락성이나 유

27) 넓은 의미에서 주체가 무언가 하고픈 바람을 표출하는 것 그 자체는 ‘육망의 발현’일 테고 이를 표출하면 모두 ‘육망 주체’라 하겠지만, 육망 담론-저항 담론 간의 차별을 뚜렷이 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시대 및 제도권에 저항하는 의지를 담아 특정 행동을 표출하면 ‘저항 주체/사회사적 주체’로, 개인적으로 한 인간이 지니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발현하면 ‘육망 주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8)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화회, 2008, 37-38쪽.

흥성, 통속성의 측면에서 일상의 단면을 포착한 것이자 풍자나 해학의 미학을 추구”²⁹⁾한 것으로 본다. 즉 성을 과감히 표현한 여성들을 현대에서는 ‘저항과 자유’로 규정했다면 조선조의 가부장제는 ‘음란’으로 규정했다고 보면서³⁰⁾, 인간 본연의 성을 철저히 까발리고 언표화 한 여성들은 늘 지니던 그들의 잠재된 욕망이 적정한 때를 만나 표출된 것일 뿐, 그 어디에도 저항의 기호가 아로 새겨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들 여성을 향한 또 다른 학술 담론의 축은, 정말 이들 여성에게서 ‘저항’의 기호는 읽어낼 수 없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사실시조 속 주체화된 여성들이, 단순히 개인 욕망이 아닌, 당대 제도권에 대한 불평한 시선을 표출한 것으로 읽어낼 가능성을, 사실시조 전체를 볼 때 발견되는 문제적인 인물들의 흔적³¹⁾, 당시 사회적으로도 발견되던 여성(기생)들의 저항적인 움직임, 남성의 ‘육체’에 대한 불만 표출(육담의 언표화) 등에서 찾는다.

이 중, 육담의 언표화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의 목소리를 차용³²⁾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현실적인 금기로 충족될 수 없었던 여성의 성적 욕망이 허구적인 문학 텍스트 속에서 실현된 결과로 해석³³⁾하기도 하는 등 상반된 시각이 제시되어 있다. 전자가 이미 고정화 된 여성 이미지 속에서 ‘여성’을 바라봄으로써 작품 속 ‘욕망’을 ‘남성의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면, 후자는 비록 당대의 여성은 ‘성적 표현의 자유로움’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존재일지라도 작품 속

29) 류해춘, 『金錢을 媒介로 한 辭說時調의 性談論』, 『시조학논총』 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29-48쪽; _____, 『불륜을 매개로 한 사실시조의 성담론』, 『우리문학연구』 24집, 우리문학회, 2008, 3-23쪽; 박연호, 『놀이공간에서의 문학적 금기위반과 그 의미』, 『어문연구』 50집, 어문연구학회, 2006, 37-62쪽; 이수근, 『소대남편[셋서방, 閻夫] 등장 사실시조의 특성 고찰』, 『한국고전연구』 3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41-65쪽.

30) 강명관, 위의 논문, 27-28쪽.

31) 사실시조에는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며느리, 어른의 부탁을 단박에 거절하는 아이 등이 등장하는데, 모두 부당하고 억압적인 시집살이가 없었거나 長幼의 질서가 공고했다면, 애초부터 없었을 일들이다.

32) 신은경, 앞의 논문, 119-120; 박애경, 앞의 논문.

33) 김홍규, 『사설시조의 애욕과 성적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한국시가연구』 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181-203쪽.

‘욕망’은 ‘여성의 것’으로 이해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입장이건 간에, 모두 ‘조선 후기=여성 억압 시대=여성에게 성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던 사회’를 전제한 시각들이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 후기를 어떻게 이해하든, 작품 상황은 여성에 의해 남성의 욕체가 담론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 자체가 ‘정신, 송고함, 몸, 인간’ 등 중심의 의미를 지녀왔다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성(性, sex), 비속함, 살, 동물’ 등 주변의 의미³⁴⁾를 형성해 왔는데, 이러한 중세의 표상인 온전한 남성을 난도질하는 여성은 충분히 저항적 표지로서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인간의 성은 비단 본능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함의들, 다양한 사회적인 힘, 권력과 담론들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성이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힘의 산물”³⁵⁾이라는 논지마저 수용하면, 이들 여성들에게서 과연 저항 의지가 없던 것으로 읽어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는다. 푸코는 일찍이, 인간의 성(性)을 사회적, 역사적 힘의 산물로 보고, 성(性)은 가부장제에서 금기로 억압되어 왔던 것이며, 그렇기에 비록 그 “드러냄이 지극히 개인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해도 금기의 파탈로 이어질 성적 표현은 곧 사회의 가치체계에 대한 강한 거부 의 몸짓”³⁶⁾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바 있다. 그렇기에, 여성에 의해 발화되는 ‘성(性)’은 더욱 저항적 지표로 읽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사실 성적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의 문학적 표현과 자유로운 발화를 유독 근대/저항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려는 데에는, 그 이전에 성(性)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부재한 때문이 아니라, 성적 욕망이, 진정으로 정체성의 근본적인 지표이자 자아 진리의 핵심화 된 것이,

34) Alexander Cuffel, *Gendering Disgust in Medieval Religious Polemic* (Notre Dame: U of Notre Dame P, 2007), 4장 “Filthy womb and foul believers” 참조.

35) 제프리 워스, 서동직 역,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현실문화, 1999, 18쪽.

36) 박훈하, 「전후소설의 성담론과 역사의식과의 상관성」, 『코기토』 제49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6, 153-164쪽.

‘주체’의 문제와 결합 된, 근대에 와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아각성 이면에는, 단순히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 싶다’는 당위적 선언이 아니라 기존 담론에 대한 저항의식이 알게 모르게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전대와는 다른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 변화나 중체를 보던 여성의 의식에 변화가 있었기에 이러한 문학적 언표화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은, 비록 불합리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려는 이전의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다. 어찌 보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스스로의 몸의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³⁷⁾ 이러한 선언적 여성은 사실시조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 문학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들 여성은, 가부장적 윤리 통제권이 닿지 않던 공간 속 여성들이기보다는, 억압된 제도권 속에서일지라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철저히 독립 주체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표명한 여성들로 읽힌다. 비록 이들 여성들이 작품 속 사회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까발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 자체가 모순투성이라면, 그리고 그 모순 속에 있으면서 불편함을 과감히 표출하면서 당대가 금기시하던 것을 망설임 없이 행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저항의 의지를 함의한 것으로 읽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초창기 사실시조 연구에서 ‘성 담론’은 ‘근대’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를 밝히려는 논의가 한창이었고 이러한 것에 대한 반론이 근대화론에 대한 가열찬 비판과 더불어 통속성, 일상성, 대중성 측면에서 다시 제기됨에 따라 후자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 갔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전자의 가능성을 새롭게 조망한 연구들도 속출하면서 사실시조 연구에서 여성주의 시각의 지형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욕망의 기호만을 새기려는 쪽과 저항의 기호까지 새기려는 쪽 간의 간극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연행 환경’의 측면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³⁸⁾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어서 향후 좀 더

37) 줄고, 「사실시조 속 여성을 향한 두 시선: 저항, 욕망 그 대립을 넘어서」, 『시조학논총』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110-111쪽.

38) 사실시조가 연행되던 놀이판은 지금까지 유흥과 오락의 기능만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

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2. 聖-俗, 그 불평등한 짝패와 ‘타자화’ 속 감추어진 여성

한편, 사설시조 속 타자화 된 여성들에 대한 학술 담론은 이 방면 여성주의 연구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크게 성녀 이미지 혹은 창녀 이미지로 제시되는 여성들 중, 그간의 논의는 주로 후자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사설시조에는 다양한 여성상이 나타나고 성(性) 관련 내용들이 많은 까닭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본 남성의 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창녀 이미지의 여성상 못지않게 성녀의 여성상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남성은 여성을 대상화/창녀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남성은 ‘여성(어머니)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여성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성을 그리워하며 이들을 칭송, 숭양하기도 한다. 따라서 완전히 일대일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의 여성으로부터의 도주와 여성을 향한 질주의 양가적인 방식은, 문학에서 종종 혐오/창녀화의 방식이거나 숭양/성녀화의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다. 오롯한 여성주의 시각을 견지하려면, 이 두 방식이 어떻게 존재해 왔던가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사설시조 연구에서는 타자화 된 여성이 전자의 방식으로만 이해되어 온 감이 크다.

이는 여성을 ‘남성에 대한 타자=주변부=피해자’라고 보아온 견고한 선입견 때문이기도 하고, 조선 후기 사설시조를 일상, 대중, 통속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성화(聖化)된 여성보다는 속화(俗化)된 여성, 평범하고 일상적인 여성들

왔지만, 사실 놀이판에는 저항과 공감적 신명이 섞여 있다. 보통 삶의 모순에 대한 저항 속에는 반드시 유희가 공존하며, 동시에 기존의 공식적 체계의 균열 또한 담겨 있기 때문이다. 놀이 속 유희/유희와 저항의 상관성은 다음의 글들에 자세하다(김문환, 『축제 미학적 해명』,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출판부, 1988, 183-197쪽; 임재해, 『구비문학의 축제성과 축제에서 구비문학의 기능』, 『구비문학연구』 24집, 한국구비문화회, 2007, 46쪽; 정근식, 『축제, 민주주의, 지역 활성화』, 새길, 1999, 53쪽).

로 이해해 온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 속화된 이미지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성화된 이미지로 제시되어 온 양가적인 존재이다. 고전시가 연구에서 대체로 이러한 성화된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향가에서 깊이 이루어졌다면³⁹⁾ 종교적 색채가 많이 약화된 고려속요, 시조, 가사 등에 오면서부터는 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국문 시가의 사적 전통에서 보면, 타자화 된 여성들은 고대가요에서는 발견되지 않다가 향가에서부터는 그 편폭이 확장된다.⁴⁰⁾ 이후 고려속요, 평시조를 거쳐 사설시조에 오게 되면 더욱 크게 확대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으로 더 고증해 봐야 알 일이지만, 적어도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¹⁾

타자화 된 여성에 관한 학술 담론의 또 다른 주요 논쟁점 중 하나는, 바로 소위 ‘대리자적 여성’으로 명명되는 여성상에 대한 것이다. 남성 화자의 여성 목소리 흉내 내기 전통을 잘 보여주는 이 유형은, 여성이 지닌 남성성, 남성이 지닌 여성성, 곧 아니마/아니무스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⁴²⁾ 우리 시가문학사에서 이러한 형태의 여성

39) 이는 향가 자체가 갖는 종교성이 ‘모성성’, ‘신성성’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소지가 많았던 때문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대표적이다(신재홍, 『모성 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 고대에서 근대 전환기까지 모성 담론의 문화적 조명: 신라 사회의 모성과 향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53-79쪽).

40) 향가에는 자신의 부분만 묵묵히 지켰음에도 남성 타자의 욕망에 의해 대상화됨으로써 귀한 지위를 잃어버리는 여성(<서동요>), 남성의 마음을 잡아두는 하나의 수단,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여성(<처용가>, <현화가>), 죽어 말이 없음에도 남성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존재로 등장하는 여성(<제망매가>) 등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41) 한 예로, 신라 지증왕, 법흥왕 시기를 지나면서 여성의 지위는 차츰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나온 <서동요>, <처용가>, <현화가>, <제망매가> 등에서도 타자화 된 여성상이 많이 보이는 점이 바로 그러하다. 비록 문학 작품과 사회 현상 간의 상동성을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 작품의 등장 시기가 모두 여성에 대한 당대의 시선이 변화되던 중앙 집권기 이후(7-9C)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가 깊다.

42) 사설시조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조 문학에서 ‘아니마/아니무스’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보여준 연구로는 김상진 교수의 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김상진, 『시조에 나타

상의 등장은, 여성 목소리의 차용이 일반적이었던 17세기 이후 악부 창작의 전통과 이에 근간한 한시 창작의 분위기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었던 현상이다.

당시 악부나 한시는 모두 남성 주도의 문학적 갈래였다. 따라서 이들이 소환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간 남성의 필요에 의해 ‘호출’당한 존재 이상의 의미는 지니지 못한다고 보아 왔다. 즉 남성 작자가, 현실적인 사회적 피소나를 한시적으로 은폐시키고 대신 가상적인 시적 피소나로서 여성을 선택함으로써, 여성은 하나의 관습적 이미지로서 끊임없이 재생산되었을 뿐이라는 통설(?)이 그간의 학술 담론을 단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형태의 여성이 과연 ‘남성의 피소나’로서 등장하는 꼭두각사이기만 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⁴³⁾ 이에 따르면, 사실 시조가 널리 연행되던 풍류방 문화의 주체들을, 지금까지는 풍류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계급과 문화적 취향 사이의 정비례 관계를 주장해 온 부르디외의 견해⁴⁴⁾에 따라 이해해 왔지만, 피터슨·심커스에 의해 제기된 옴니보어(omnivore) 가설⁴⁵⁾에 주목해 본다면 달리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즉 피터슨·심커스는 직업적 지위와 문화적 취향 간에는 부르디외 식의 상응관계가 존재하는 한편, 상층은 다른 계급의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며 고상하지 않은 문화 또한 폭넓게 즐기므로, 상층계급의 문화적 특성을 배제가 아닌 개방에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개방성은 ‘상층을 향한 지향성’ 혹은 ‘상층 문화에의 동화’만 있었던

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형상], 『국제어문』 62집, 국제어문학회, 2014, 197-229쪽).

43) 줄고, 「사설시조 속 여성을 향한 두 시선: 저항, 욕망 그 대립을 넘어서」, 『시조학논총』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89-128쪽; 정성미, 「지속가능한 풍류방문화와 풍류객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7집, 역사문화학회, 2014, 139-175쪽.

44) Bourdieu, Pierre.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n the Judgement of Taste*, translated by Richard N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45) Peterson, Richard A. and Albert Simkus, “How Musical Tastes Mark Occupational Status Groups.”, 1992, pp. 152-186 in Michèle Lamont and Marcel Fournier (eds.). *Cultivating Difference: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eterson, R., & Anand, N. “The Production of Cultur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 2004, pp. 311-334.

것이 아니라, 변화되던 도시 문화와 더불어 하층 문화에 대한 개방성 또한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이 성을 포함해 당대에 대한 저항의 몸짓, 발랄한 일상의 표현 등이었다면, 이들이 놀이판으로 소환한 여성들이 펼치는 성애(性愛), 불륜(不倫), 육담(肉談), 저항 등은 당대 여성들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자 그들과 또 그들에 동조하는 모든 이들의 섹슈얼리티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들 여성은, 남성에 의해 ‘죽은 여성’, ‘호명/타자/박제화 된 여성’ 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록 놀이판이라는 허구 속일지라도 여성 본연의 섹슈얼리티를 상실하지 않은 채, 인간 본성인 정욕을 남성의 목소리 속에서 과감히 표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시선은, 지금껏 ‘남성 목소리 차용’이라는 전통에서 ‘타자화’로 한데 묶어 이해해 온 이 유형의 여성들을 다시 바라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가사적 전통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생각할 지점들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정과정>이나 <사미인곡>, <속미인곡> 같은 작품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비록 갈래는 다르지만, 이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는 작자의 욕망을 대변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부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동일한 남성 작자의 여성 목소리 차용 현상을 두고, 고려속요나 가사 등 여타 갈래 속 ‘여성’은 남성의 필요에 의해 차용한 ‘폐소녀’, 혹은 ‘꼭두각시’로 이해를 하고, 사설시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이중 잣대가 과연 바람직할까?

이와 더불어 우리 고전문학을 들여다보면, 비단 시가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대신해 글을 짓는 대작(代作)의 글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여성의 부탁에 의해 쓴 경우도 있고, 부탁받지 않고도 여성의 입장에서 글을 남긴 경우도 더러 있는데 어느 경우든 여성을 차용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담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 여성은 동일한 층위는 분명 아니다. 즉 남성이 여성을 대신해 ‘여성인 척하며 글을 쓴 경우’는, 대체로 여성의 섬세함이 세밀히 드러나진 않더라도 작품 속 여성은 곧 여성 스스로의 욕망과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성이 자기 이야기를 ‘여성인 척 하며 글을 쓴 경우’에 여성은, 남성의 필요에 의해 요청된 ‘박제화 된 여성(꼭두각시)’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타자화 된 여성의 층위도 작자 및 작품 창작 배경 등 제반 상황 속에서 미세한 ‘차이’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시가사적 전통에서 보자면 대체로 남성이 여성을 차용한 경우는, 작자가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창작 배경 또한 비교적 뚜렷하므로, 작품 속 ‘여성’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실시조처럼 작자 미상의 작품이 많거나 남성(가객 등 연행자)의 성향을 뚜렷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환된 ‘여성’이라면, 비록 사실시조와 대작(代作)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후자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자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

지금까지 사실시조 속 ‘타자화 된 여성’은 후자의 측면에서만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주의가 동일성보다는 차이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현재, 전자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은 앞으로 사실시조 여성주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즉 이러한 유형의 여성은, 남성 작자의 필요에 의해 차용한 ‘폐소녀’, ‘꼭두각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여성의 욕망을 잘 이해하는 가객 남성의 입을 통해 표출된, 표면 상 ‘타자화 된 여성’이나 그 이면에 ‘주체화된 욕망’과 사회사적 의미를 한가득 담고 있는 여성일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3.3. 남겨진 불모지, 소수자성을 향한 편향된, 또 하나의 부재 시선

사실시조에는 그간 여성주의 시각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 담론에서 배제된 또 다른 여성군들, 바로 ‘무성화 된 소수자 여성들’이다. 사실시조에는 기생, 며느리, 첩, 노년/장애 여성 등 주변부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 중 기생·첩·며느리 등은 풍류방/유흥 문화, 저항의식, 가족과 혼인의 테두리 안에서 그나마 종종 언급되었지만, 노년·장애 여성들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주의 시각에 대한 학술 담론이 과열되어 감에 따라 주변부였던 여

성들의 많은 부분이 문학사에 복원되긴 했지만,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주변부 중에서도 주변부였던 후자의 여성들(장애/노년 여성)은 더욱더 ‘소외된 타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사에서 여성은 적극적인 주체로 남성을 타자화하기도 했지만, 남성에 의해 대상화되기도 했다. 대상화 과정은 속화된 여성(창녀)일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성화되고 숭앙되는 여성(성녀)일 때도 있었다. 그런데 장애와 노년 여성들은 잉여적 존재들로서, 주체화될 때도 있었지만, 그때조차도 타자화 될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창녀 혹은 성녀를 넘어서는 그 어떤 무성의 지점에서만 의미를 지녀온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여성 문학은,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조차 잉여적 존재로서 소외된 여성들의 처지와 감성을 오롯이 보듬어 안을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관련 논의가 단편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⁴⁶⁾ 여전히 성(性)에 과감한 여성들이나 기생 연구 등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다. 특히나, 여성 담론 중에서도 주변부를 차지해 온 이들 여성에 대해서는, 그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년 여성의 경우는, ‘여성’과 ‘노년’이라는 이중 잣대 속에서 그렇잖아도 남성 중심의 문학사 안에서, 더욱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에게 있어 ‘젊음’이 생산력을 상징한다면, ‘늙음’은 바로 이러한 생식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상실의 몸, 실패와 퇴화의 몸으로 규정⁴⁷⁾되는 늙은 여성은

46) 김지은, 「고전시가에 형상화된 소외자 연구-늙은 여성의 욕망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1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9, 257-278쪽; 이수근, 「노년의 형상화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한 시론적 고찰-조선 후기 사실시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313-338쪽; _____, 「여성의 잘 나이 들기: 조선 후기 시가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57-85쪽. 사실 사실시조뿐만 아니라 시조문학 전체를 통틀어 이 방면 연구는 상대적으로 여성주의 시각의 변두리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근, 현대시조에 나타난 노년 여성에 대한 관심이 나오기도 했지만(조춘희, 「현대시조에 나타난 ‘할머니’ 양상 연구-『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9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255-281쪽) 여전히 이 방면 논의의 불모지이다.

47) 에일리 마틴, 『여성의 몸에 관한 의학적 비유: 월경과 폐경,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인식되곤 했다.⁴⁸⁾

그렇기에 이러한 노년 여성을 다룬 논의들에서도 대체로 고정화된 노년 이미지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퇴화된 몸을 가진 여성이 표출하는 성적 욕망이 젊은 여성의 성적 욕망과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음을 구명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동일한 욕망 층위를 부과하려 하거나⁴⁹⁾ 여성/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노년 인물’ 전체의 틀 속에서, 퇴화된 성을 지닌 노년 여성의 성적 욕망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보려 한 것⁵⁰⁾, 혐오의 시선문화사를 통시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사실시조 속 ‘노년 여성의 몸’이 어떻게 난도질당하는가를 부분적으로 읽어낸 것⁵¹⁾ 등이 바로 그러하다. 앞의 두 논의가 노년 여성을, 젊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능을 표출한 일상적 여성으로 이해한 것이라면, 후자의 논의는 그러한 일상성 이면에 감추어진 늙은 여성을 향한 중세의 응징적인 시선을 통해, ‘기다림에 익숙한 여성’이라는 사회관념에 도전하는, 저항의 여성으로 읽어낼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많지는 않지만, 표면상 노년 여성에 대한 단편적인 학술 담론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긴 간에, 모두 소외자로서의 여성을 문학사에 복원하려는 노력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노년은 언젠가는 모두가 도달하고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한 개인의 문제, 일상, 당연함을 지닌 동시에 노년 담론, 노년층, 노년 사회, 노년 문화 등에서 보듯 하나의 문화적 사실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 한울, 2001.

48) 한 예로, 정철의 <사미인곡>에 등장하는 젊음-늙음의 대비에서 보이는 임의 태도 변화, 이에 따른 ‘늙은 여성’의 자의식 부분이나 사실시조 중, ‘남기라도 고목이 되면 오든 사 이 아니오고/꽃이라도 십일홍되면 오든 봉뎀도 아니오고 깊은 물이라도 엇터지면 오든 고기도 아니오고 우리인성이라도 늙어지면 오시든 정판도 에도라 가구나/춤아 가지로 괴가 만히 막혀서 나 못살갓네.//’의 작품에서 ‘늙음/늙은 여성’에 대한 자아-타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49) 김지은, 앞의 글, 2019.

50) 이수근, 앞의 글, 2009.

51) 줄고, 『조선 후기 시가에 나타난 혐오의 한 양상과 그 문화론적 의미』, 『국어국문학』 185호, 국어국문학회, 2018, 143-180쪽.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노년 여성의 욕망이 젊은 여성의 욕망과 얼마나 같고 다른가를 애써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왜 이들이 성적 욕망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발현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혹은 그러한 시대를 초월해서, 왜 여타 많은 여성들처럼 이들의 욕망이 사회 담론의 하나로서 그토록이나 문제시되어야 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있어야 할 것이다.

노년 여성에 대한 학술 담론과 마찬가지로, 장애 여성에 관한 담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실 사설시조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장애’를 다룬 작품은 매우 극소수이다. 그렇기에 장애에 관한 학술 담론은 노년 담론에 비해서도 더더욱 취약한 상황이며, 실상 아예 ‘담론’이라 명명할 수조차 없을 만큼 빈약한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관련 논의가 나오긴 했지만⁵²⁾ 후속 연구가 크게 따르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이 방면 연구의 불모지로 남아 있다.

주지하듯이, 장애 문학은 고전, 현대 할 것 없이 그 관심의 시작이 그리 오래지 않다. 늘 비주류로서, ‘온전치 못한’, ‘함량 미달의’ 문학으로 인식되면서, 문학사에서 오랫동안 복원되지 못했던 여성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장애’는 죽은 채로, 존재해 온 학적 주제였다. 사실 장애는 노년(여성) 담론과 함께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담론⁵³⁾의 하나이자, 소수자, 소외자, 약자, 타자라는 범주 속에서 규정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장애 여성에 대한 관심은 곧 사회적 소수자(성)/소외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현현되며, 이들을 향한 다수자(성)의 권력 횡포는 또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사설시조의 여성주의 시각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장애인들 자체는 소수자들로서, “모든 형식을 제거한 이후에 남겨지는 잔여물 곧, 벌거벗은 생명[homo sacer]이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전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자”⁵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들을 향한 거리감, 혐오감

52) 줄고,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호, 국어국문학회, 2018, 125-166쪽.

53) 수전 웬델, 강진영 외 역,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91쪽.

은 자기 몸을 자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세계에 대한 믿음의 상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⁵⁵⁾ 따라서 몸의 훼손과 배척, 그 훼손되고 배척된 몸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을 추적해가는 가는 작업은, 사설시조 속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오롯이 복원함은 물론, 여성을 향한 시선의 문화사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4. 남은 과제와 전망 모색 -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사설시조 속 여성들의 흔적과 그 흔적을 향한 시선의 층위, 곧 학술 담론의 추이를 두루 한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체화된 여성들을 욕망 혹은 저항으로 보아온 시선들, 타자화 된 여성들을 성녀-창녀의 이분법 속에서 이해해 온 남성들과 이들이 소환한 여성을 향한 시선들, 무성화 된 여성들을 향한 편향된 시선들과 부계의 시선 등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한 가지 지울 수 없는 생각은, 그간 시가문학사에서 여성은 여성주의 시각이라는 이름 하에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여성주의 시각의 공과를 살피는 자리이니, 당연히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지나치게 여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여성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인지는 의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고전시가에서 여성주의 시각은 남성과의 이원적인 관계, 배타성을 크게 강조해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폄박받은 여성들에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여성들 간의 화합과 연대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가에 초점을 둔 감이 크다. 이 중 후자는 보통 ‘가족’의 테두리 속에서 여성

54)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156쪽.

55) 줄고,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호, 국어국문학회, 2018, 142쪽.

들 간의 공통항과 연민의 시선들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가족과 혼인은 이 방면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이는 가족 내에서 다양한 갈등이 형상화되고, 그러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과 이들을 제어하려는 중세의 시선 등이 다채롭게 맞물려 작품 해석을 풍성하게 해 온 때문이다.⁵⁶⁾

그런데 가족과 혼인의 테두리 안에서 여성은 단순히 아내, 딸, 어머니, 며느리 등의 차원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탈을 통해 개인과 사회사적 담론 간의 대립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탈은 비단 사설시조에서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 여타 갈래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규방 가사에는 소위 치산(治産)과 부덕(婦德)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으른 여성들이 등장한다(<나부가>의 금세부인,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 <용부가>의 뽕덕어미 등). 이를 두고 한쪽에선 개인의 도덕적 결함 문제와 이를 통어하려는 중세의 시선으로 이해한다면⁵⁷⁾,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중세를 향한 반항적 태도로 읽어내는 것⁵⁸⁾이 그 단적인 예이다. 전자는 여성을 ‘개인의 문제/부정적/중세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본 시선이라면, 후자는 여성을 ‘사회의 문제/긍정적/근대 저항의 아이콘’으로 본 시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관점에서 여성을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가족의 테두리 속이건 아니건 간에, 여성은 긍정적인 때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일 때도 있는 등 양가

56) 사설시조 속 여성 연구 자체가 사실 모두 가족의 범주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크게 내세워 논의한 경우 몇몇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경숙, 「조선 후기 시조에 나타난 가족의 양상」, 『시조학논총』 49집, 한국시조학회, 2018; 김용찬, 「사설시조 속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고부, 처첩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09-138쪽.

57) 길진숙,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용부가>·<복선화음가>·<심청가>의 일탈형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85-118쪽; 이국진, 「나부를 모티프로 한 한국 한시와 국문가사의 대비적 고찰」, 『고전문학연구』 5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6, 5-39쪽; 정한기, 「가사 『나부가』의 형성배경에 대한 연구-나부(懶婦)를 소재로 한 한시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4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375-397쪽.

58) 정인숙, 「<나부가>에 나타난 게으른 여성 형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195-218쪽.

적인 의미를 지녀왔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여성들의 움직임에 맞추어 남성들 또한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여성을 강하게 응징하며 제도권 안에 포섭하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이들의 일탈에 동조하거나 인정하고 심지어 포기해 버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지형도를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오롯한 젠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만을 강조하는 배타적이고 편향적인 방향성을 넘어, 여성의 상대역으로 존재해 온 ‘남성’에 대한 관심을 함께 살피며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제 여성이 아닌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남성(성)’, 특히 ‘아버지’의 새로운 지점들을 살펴 보려 한 움직임들은 주목된다.⁵⁹⁾ 비록 여성 연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새로운 남성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사적 반성과 관심은, 언제부턴가 늘 지배적이고 절대적인 것만 같았던 남성(성) 또한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인식이 대두함에 따라, 전통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남성(성)의 등장에 대한 요구와 갈망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전시가에서 이 방면에 대한 연구사적 관심은 장애, 노년 여성만큼이나 일천한 편이다. 물론, 시집가는 딸에게 훈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포착한 경우(<계녀가류>)나 자전적 술회가 담긴 조선 후기 가사에서 약화되어 가던 남성성의 일면을 살펴본 경우도 있지만, 이 시기 시가문학에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아버지 상(像) 혹은 남성(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려 한 연구는 물론, 가장의 부재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려 한 노력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둘째, 앞으로 여성주의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여성문학사 서술을 위한 토대 연구로서, 남녀의 대립각을 넘어서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는 아이콘으

59) 여기에는, 조선 후기 소설 속 父權 형상의 일면을 고찰한 논의나 왕족 및 특정 가문이나 남긴 글들에서 父意識과 아버지 像을 찾으려고 한 논의, ‘엄격한 가부장→집 떠난 부양자(1830-1900년)→온유한 아빠(1900-1970년)→협력적 양육자(1970년-현재)’로 시기별 父의 변천상을 고찰해 본 논의 등이 대표적이며, 관련 연구사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다 (줄고, 『사설시조에 나타난 부권 상실의 흔적들』, 『한국고전연구』 4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33-74쪽).

로서의 ‘여성상’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시조를 가만 들여다보면, 남성에게 폄박받거나 숭양받는 여성들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또 남성의 권위를 조롱하고 뒤집으려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이러한 남성들과 더불어 잘 살아 보려고 노력한 여성상들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한 예로 아래의 사실시조를 보자.

書房님 病들여 두고 쓸것 업서 鍾樓 저지 달리 파라
 비사고 감스고 榴子스고 石榴쌌다 아츠아츠 이저고 五花糖을 니저 밧여고즈
 水鉢에 술 쪼즈 노코 한숨계워 호노라. <193>

여기에는 타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여성이 엿보인다. 가장인 남편은, 초장에서 병들었다 하는 것을 보니,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듯싶고, 화지는 머리 장식까지 팔았다 한 것을 보니, 그간 남편을 돌보다가 가산을 다 탕진해 버린 상황임을 짐작⁶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껴안는 따뜻함을 보여준다. 머리 장식을 팔아 겨우 산 화채 재료들, 그런데 단 맛을 낼 화룡점정 같은 오화당을 잊어버렸다며 ‘아차 아차’ 아쉬워하는 모습에서는 웃음도 나지만 그 웃음에는 애잔함이 묻어난다.

타자를 향한 이러한 따뜻함은 그 전대 시가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되며, 비단 여성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노래만 듣고 모함하여 강제로 출궁시킨 궁중 대신들을 따스하게 껴안은 선화공주(<서동요>), 불도를 닦으러 가다가 마주한 도적떼들을 이해하며 오히려 따스하게 감싸 안은 영재(<우적가>), 동경 밝은 달 아래 놀다 와 보니, 자신의 아내를 범해 버린 역신, 이를 향해 화내기 보다는 관용을 베풀고 용서한 신라의 처용(<처용가>)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진정한 여성주의 연구는, 자기 집단의 결속성을 중시하는 것을 넘어, 타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할 때에야 비로소 발전 가능성이 있게 된다. 문학사를 가만 들여다보면, 지배층-피지배층, 절대 권력-저항 권력, 일상-비일

60) 김홍규, 『사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35쪽; 줄고,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호, 국어국문학회, 2018, 145쪽.

상, 이상-현실, 중심-주변(탈 중심), 남성-여성, 서정-서사. 미(美)-추(醜), 다수자성-소수자성 등이 늘 짝패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도식화된 짝패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동시에 특정 대상들을 흑백 논리의 이분법화 된 틀 속에 가두어 오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여성’ 또한 ‘남성’과의 대립 구조로서만 이해해 온 감이 크고, 그 결과는 ‘갈등의 흔적 찾기’로 귀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갈등의 흔적을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는, 꺾박받던 여성들의 흔적 찾기에 주력하기 보다는, 그러한 ‘갈등 극복’의 파편화 된 흔적, 화해의 아이콘으로서의 여성상을 찾아, 나와 너가 한데 어우러진 진정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깊은 것이다.

셋째, 오묘한 여성주의 시각의 방향 정립을 위해서는 ‘남겨진 여성들’에 대한 발굴과 비교 연구도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및 노년 여성에 관한 단편적인 학술 담론만을 살펴보았지만, 이와 더불어 ‘이주 여성’에 관한 관심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시조에는 갈래의 특성 상, 이방인 여성에 대한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고전시가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러한 여성들의 흔적은 심심찮게 발견된다. 한 예로 최치원의 <향악잡영> 5수 중, ‘속독(束毒)’은 소그드를 음사(音寫)한 것으로⁶¹⁾, 이들은 술을 좋아하고 길에서 춤추고 노래하기를 즐겼다고 하며, 당대의 유명한 춤인 호선무(胡旋舞)와 일종의 기녀인 호희(胡姬)도 소그드계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신라에 전래된 속독도 처음에 소그드인 무용수와 악사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시기 또한 8세기 후반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최치원이, 속독을 ‘당악(唐樂)’과 구분되는 ‘향악(鄉樂)’으로 구분하였다는 점까지 주목한다면 당시 이방인, 특히 서역인 여성들의 음악과 문화가 9세기 무렵에는 이미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고대 한국 사회에서는 귀화인에 대하여 ‘내자불거(來者不拒)’의 원칙에 따라, 귀화해오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었고, 귀화인이 가장 많았던 고려 때에는 그 규모가 약 24만 명에 이르렀으며 당시 고려 전체 인구인 210만의

61) 이두현, 『한국연극사』, 보성문화사, 1979, 48쪽.

1%를 넘게 차지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이방인들과 함께한 다문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주 및 귀화 여성들의 흔적을 시기별로 살펴 이들이 시가문학사적으로 한 역할과 이들을 향한 시선의 담론 추이를 살피는 것도 여성주의 연구에서 남겨진 숙제이다.

이 외에도 방법론적 쇄신 문제, 연행 환경 속 여성들이 펼친 수많은 역할 등이 깊이 논의가 될 때, 고전시가 분야에서 여성주의 시각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뚜렷해질 것이다. 이 중 방법론적 쇄신 문제만 가볍게 한번 짚고 가자면, 기존에 지적되었듯이, 고전문학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론적 모색을 시도하면 거부감부터 일으키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다. 여성주의 시각으로 고전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작품 속에서 여성의 고난과 성적 억압의 징후들을 발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품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읽는다는 전복적 독해를 의미하며, 고전문학 연구에는 특히나 이런 도전적 해석이 필요⁶²⁾하다. 고전문학 연구에서 “자료만이 아니라 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검토, 즉 이론에 대한 관심이 喫緊하다”는 지적⁶³⁾은 그런 점에서 매우 타당하다.

그렇기에 사실시조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나아가 고전문학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도입과 해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열린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검증 과정 없이, 서구 이론의 무분별한 수용과 적용이 활개쳐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방법론적 쇄신을 위해 눈 돌린 여성주의적 시각이, 여타 모든 문학적 관점들을 통합하고 심지어 초월할 수 있는 그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 또한 당연히 지양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은 그만[no more feminism]”이라는 집단 정서와 “또 다른 페미니즘”을 향한 시도 사이에서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⁶⁴⁾에서 보듯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중심이 되고 ‘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

62) 정출현 외, 『책머리에』,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63) 조현설, 『여성주의와 고전문학 연구의 접점과 향방』, 『민족문학사연구』 37호, 민족문학사학회, 2008, 40쪽.

64) 권명아, 『불/가능한 싱글 라이프: 번역 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 사이의 삶과 죽음』, 『여성문학연구』 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97쪽.

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쪽에서는 여성들 간의 연대와 결속이 강화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남성(성)’에 대한 권위 회복을 기치로 내 건 움직임 또한 일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여성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그 지난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되물어 보기 위해 끊임없이 학술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여성주의가 서 있는 ‘현재’이자 앞으로도 지속 되어야 할 ‘미래’가 아닐까 싶다.

참고문헌

『泰村集』 卷5, <效嘸雜記下>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한국한문학회연구』 42집, 한국한문학회, 2008, 9-43쪽.

(UCI : G704-000273.2008..42.002)

고정희,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의 수사적 상황」, 『국어교육』 114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199-222쪽.

(UCI : G704-000315.2004..114.010)

_____, 「고전시가 여성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15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7-31쪽.

(UCI : G704-001380.2006..15.006)

권명아, 「불/가능한 싱글 라이프: 번역 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 사이의 삶과 죽음」, 『여성문학연구』 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71-101쪽.

(UCI : G704-001380.2011..26.009)

권순희, 「신발굴 가집 『詩歌』의 특성」, 『한민족어문학』 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421-446쪽.

(UCI : G704-001066.2013..65.011)

_____, 「『영화초(詠和抄)』 수록 여창가곡의 특성」, 『청람어문교육』 5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369-392쪽.

(UCI : G704-001465.2015..56.008)

길진숙,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용부가>·<복선화음가>·<심청가>의 일탈형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85-118쪽.

(UCI : G704-001831.2009.0.19.004)

김문환, 「축제의 미학적 해명」,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출판부, 1988, 183-197쪽.

김병국 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김상진,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기녀시조」, 『시조학논총』 36집, 한국시조학회, 2012, 17-42쪽.

(UCI : G704-001211.2012..36.003)

_____, 「시조에 나타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형상」, 『국제어문』 62집, 국제어문학회, 2014, 197-229쪽.

(UCI : G704-000774.2014..62.001)

_____, 「‘시조와 여성’을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 『시조학논총』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7-38쪽.

김양선,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45-669쪽.

(UCI : G704-001380.2012..28.001)

김용찬, 「사설시조 속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고부, 처첩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09-138쪽.

(UCI : G704-001541.2005.11.11.005)

김지은, 「고전시가에 형상화된 소외자 연구-늙은 여성의 욕망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1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9, 257-278쪽.

김홍규, 「사설시조의 애욕과 성적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한국시가연구』 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181-203쪽.

(UCI : G704-000454.2003.13..008)

류혜춘, 「金錢을 媒介로 한 辭說時調의 性談論」, 『시조학논총』 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29-48쪽.

(UCI : G704-001211.2006..25.009)

_____, 「불륜을 매개로 한 사설시조의 성담론」, 『우리문학연구』 24집, 우리문학회, 2008, 3-23쪽.

(UCI : G704-001473.2008..24.0090)

_____, 「商行爲를 媒介로 한 辭說時調의 性談論」, 『우리문학연구』 22집, 우리문학회, 2007, 95-115쪽.

(UCI : G704-001473.2007..22.008)

박무영, 「『한국문학통사』와 “한국여성문학사”(논평): 여성문학사를 위하여」,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5, 79-118쪽.

(UCI : G704-000294.2005..28.011)

박상영, 「사설시조에 나타난 권력의 흔적들」, 『국어국문학』 181호, 국어국문학회, 2017, 67-104쪽.

- _____, 「고려속요에 나타난 서사성의 한 양상」, 『한국시가연구』 32집, 한국시가학회, 2012, 153-190쪽.
(UCI : G704-000454.2012.32..002)
- _____, 「사설시조에 드러난 일상성 담론과 미학, 그리고 근대」, 『시조학논총』 37집, 한국시조학회, 2012, 125-158쪽.
(UCI : G704-001211.2012..37.002)
- _____, 『사설시조의 웃음 미학과 담론』, 아세아문화사, 2013.
- _____, 「고전시가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 『한민족어문학』 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297-340쪽.
(UCI : G704-001066.2013..64.009)
- _____, 「사설시조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40집, 한국시조학회, 2014, 143-177쪽.
(UCI : G704-001211.2014..40.004)
- _____,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혐오의 한 양상과 그 문화론적 의미」, 『국어국문학』 185호, 국어국문학회, 2018, 143-180쪽.
- _____,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호, 국어국문학회, 2018, 125-166쪽.
- _____, 「사설시조 속 여성을 향한 두 시선: 저항, 욕망 그 대립을 넘어서」, 『시조학논총』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89-128쪽.
- _____, 「사설시조에 나타난 부권 상실의 흔적들」, 『한국고전연구』 4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33-74쪽.
- 박애경, 「사설시조의 여성화자와 여성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집, 한국여성문학회, 2001, 93-115쪽.
- 박연호, 「놀이공간에서의 문학적 금기위반과 그 의미」, 『어문연구』 50집, 어문연구학회, 2006, 37-62쪽.
(UCI : G704-000503.2006.50..008)
-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下, 아세아문화사, 1992.
-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 화자」, 『고전문학연구』 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5-28쪽.
- 박훈하, 「전후소설의 성담론과 역사의식과의 상관성」, 『코기토』 49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6, 153-164쪽.

- 수전 웬델, 강진영 외 역,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 신경숙, 「고전시가와 여성: 연구사검토와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305-325쪽.
- 신은경, 「조선 후기 ‘님’ 담론의 특성과 그 의미: 辭說時調와 雜歌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113-139쪽.
(UCI : G704-001211.2004..20.006)
- 신재홍, 「모성 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 고대에서 근대 전환기까지 모성 담론의 문화적 조명: 신라 사회의 모성과 향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53-79쪽.
- 에일리 마틴, 『여성의 몸에 관한 의학적 비유: 월경과 폐경,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 이국진, 「나부를 모티프로 한 한국 한시와 국문가사의 대비적 고찰」, 『고전문학연구』 5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6, 5-39쪽.
(UCI : G704-000294.2016..50.007)
- 이두현, 『한국연극사』, 보성문화사, 1979.
- 이상원, 「중 등장 사설시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한민족문화연구』 6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7, 137-164쪽.
- 이수곤, 「‘소대남편[셋서방, 閫夫]’ 등장 사설시조의 특성 고찰」, 『한국고전연구』 3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41-65쪽.
(UCI : G704-001831.2016..33.008)
- _____, 「노년의 형상화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한 시론적 고찰-조선 후기 사설시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313-338쪽.
(UCI : G704-001650.2009..31.014)
- _____, 「여성의 잘 나이 들기: 조선 후기 시가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57-85쪽.
(UCI : G704-001541.2011..23.011)
- 이형태, 「사설시조와 여성주의적 독법」, 『시조학논총』 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401-426쪽.
- 임재해, 「구비문학의 축제성과 축제에서 구비문학의 기능」, 『구비문학연구』 24

- 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1-57쪽.
(UCI : G704-000283.2007..24.008)
- 장정수,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승 형상, “비구니 되기”와 “환속 권유”」, 『한민족 문화연구』 32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7-37쪽.
(UCI : G704-001650.2010..32.008)
- 정근식, 『축제, 민주주의, 지역 활성화』, 새길, 1999.
- 정성미, 「지속가능한 풍류방문화와 풍류객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7집, 역사문화학회, 2014, 139-175쪽.
(UCI : G704-001407.2014.17.1.008)
- 정인숙, 「<나부가>에 나타난 게으른 여성 형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2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195-218쪽.
(UCI : G704-001541.2013..26.007)
-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 시각』, 소명출판, 2003.
- 정한기, 「가사 『나부가』의 형성배경에 대한 연구—나부(懶婦)를 소재로 한 한시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4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375-397쪽.
(UCI : G704-000452.2006.34.1.012)
- 제프리 워스, 서동진 역,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현실문화, 1999.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조성진, 「사설시조에 나타난 자기 풍자」, 『제67차 정기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시가학회, 2013.
- _____, 「화자의 “시선”과 사설시조의 담당층 문제」, 『국문학연구』 26집, 국문학회, 2012, 57-96쪽.
(UCI : G704-001747.2012..26.011)
- 조세형, 「사설시조의 중층성과 욕망의 언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97-123쪽.
(UCI : G704-001541.2003..7.008)
- 조춘희, 「현대시조에 나타난 ‘할머니’ 양상 연구—『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9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255-281쪽.
- 조현설, 「여성주의와 고전문학 연구의 접점과 향방」, 『민족문화사연구』 37호, 민

- 죽문학사학회, 2008, 33-51쪽.
(UCI : G704-000519.2008..37.011)
- 최기숙, 「젠더 비평-메타 비평으로서의 고전 독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19-348쪽.
(UCI : G704-001541.2006.0.12.002)
- 최재남, 「고전시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배달말』 39집, 배달말학회, 2006, 263-284쪽.
(UCI : G704-000768.2006..39.004)
- 하경숙, 「조선 후기 시조에 나타난 가족의 양상」, 『시조학논총』 49집, 한국시조학회, 2018, 99-122쪽.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 Alexander Cuffel, *Gendering Disgust in Medieval Religious Polemic* (Notre Dame: U of Notre Dame P, 2007.
- Bourdieu, Pierre.,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n the Judgement of Taste*, translated by Richard N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Peterson, Richard A. and Albert Simkus, “How Musical Tastes Mark Occupational Status Groups.”, in Michèle Lamont and Marcel Fournier (eds.). *Cultivating Difference: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 152-186.
- Peterson. R., & Anand, N.. “The Production of Cultur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 2004, pp. 311-334.
- Rubin, Gale.,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Vance, Carole S.(ed.).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pp. 267-319.

| Abstract |

Saseolsijo and Women: Traces and Strata of Gaze

Park, Sang-young
Daegu Catholic Univ. Prof.

This study attempted to view the problematic agendas the feminist perspective has produced in the field of classical poetry, and what are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through traces of women in *Saseolsijo* and its trends of academic discourse toward them. This study comes from the research historical reflection that there has been a lot of empathy and reverberation about the views on women, being considered as a manifestation of the otherness distorted by men or as a device to projects men's desire in the entertainment space, but still it's not clear.

In *Saseolsijo*, three types of women are discovered, subjective women, asexualized. Subjective women are active who express unrelenting sexual desires and otherized women are passive, silent in the male's manner of lady-whores. Asexualized women are represented as alienated women (disabled, older women) beyond division between subjectivity and otherization.

There are various trends in academic discourse towards them. Academic gazes for subjective women are complicated in related to the differences of the view of the late *Choseon* Dynasty,

modern-premodern, desire-resistance, etc. About otherized women, we can see men's biased gaze through the dichotomy of the saint-whore and we can see that 'simulating the female voice of the male author' was the main issue. On the other hand, academic discourse about asexualized women has been insignificant; however, the recent discourse of older women has progressed somewhat with conflict of desire-resistance unlike disable women.

So far, feminist perspectives in Korean classical poetry have greatly emphasized the dual relationship with men, thus focusing on how harmonization and solidarity between women or women persecuted by men are achieved. To be a complete gender study, the following points need to be considered in multiple ways, Interest in men who have existed as counterparts of women, finding women's image as a harmonious icon, discovery and comparison of leftover women (migration and naturalized women, etc.), finding out the role of women in the performance environment, etc.

Key words : *Saseolsjo*, Traces of Women, Subjectivity-Otherization-asexual gender, Academic Discourse